

국내 무형유산의 미디어 보도 동향 분석[†]

- 무형유산 기록 및 조사를 중심으로 -

정은파* 세종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격으로 변화된 언론의 시각과 초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지닌다. 첫째 장기적 경향분석을 시도하였고 둘째, 빅카인즈를 통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각화하였다. 셋째, 무형유산의 기록과 조사를 중심으로 보도된 내용 비교를 하였다. 넷째, 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대중적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뉴스 빅데이터 포털인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무형유산 관련 기사를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신문사, 방송국 등이 연동된 빅카인즈에서 '무형유산 기록'과 '무형유산 조사' 키워드 두 가지로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각각 1,780건, 1,348건에 대해 2000~2009년, 2010~2019년, 2020~2024년까지 총 3구간의 기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의 세부 방법은 관계도 분석,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2000년대 초기에는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국내 정책 입안 등의 국내 이슈와 함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동북공정 같은 국제적 이슈 중심의 보도가 많았으며, 이후 2010년대에는 유네스코 등재소식을 알리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보도가 이뤄졌으며,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무형유산 관련 공연 및 전시 이슈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20년대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및 전시, 교육 취소로 인해 관련 기사가 상대적으로 줄었으며, 국가유산기본법 관련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고, 그러한 와중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록과 조사 활동이 눈에 띄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무형유산의 접근성과 대중적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무형유산의 기록과 조사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정책 수립과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미디어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향후 미디어와 바람직한 관계 모색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국제적 협력 관련 지속적인 홍보 및 이슈 확대를 통한 무형유산 보존 및 활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무형유산, 기록, 조사, 텍스트마이닝, 빅카인즈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한류의 파급력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무형유산에 대한 가치의 보존과 활용, 이를 둘러싼 법제도의 양상과 대중적 관심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4차 산업이 발달하고 미디어 대전환 시대로 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무형유산 분야에도 예술가들에게 문화유산과 기술의 융합접근, 무형유산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콘텐츠 변화와 경계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무형유산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자산이다(송정훈, 2018). 그러나 비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생하기 어렵기 때문에(오정심, 2015), 사회적 관심과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형유산은 유튜브 같은 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관심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jep33@hanmail.net

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보도를 통한 무형유산에 대한 불특정다수의 대중적 접근은 직접 체험 방식이 갖는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무형유산 기록 및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국내 미디어 보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격으로 변화된 언론의 시각과 초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 보도의 질적, 양적 변화를 이해하고, 보도의 방향성이 정책이나 문화 인식에 끼친 영향과 반대로 정책과 인식의 변화가 보도에 끼친 영향을 조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장기적 경향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이 특정 시기나 이슈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10년 단위로 나눠 무형유산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의 변화 추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전승자 간 갈등 등 무형유산과 관련 정책에 대한 대내외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를 주요 기점으로 삼은 데 따른 것이다(김용구, 2023). 둘째, 뉴스 기사 분석 포털인 빅인즈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관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뉴스 보도의 흐름과 주요 키워드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량적인 분석 시도는 크게 무형문화유산 제도 및 정책, 전승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기록화에 관한 연구, 목록화 및 분류체계,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지는 무형유산 분야에서(한희정 외, 2016), 연구방법의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무형유산의 기록 및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무형유산의 홍보나 보존 관점뿐만 아니라, 기록 및 조사를 중심으로 보도된 내용도 함께 비교하여 다루었다. 이는 무형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기록 및 조사에 대해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사회적 논의점을 함께 조망함으로써 통합적인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문화 정책 수립에 있어 대중적 접근성의 향상을 반영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대중성이 반영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무형유산 관련 정책 수립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기록 및 조사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언론의 역할 강화 및 책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미디어가 무형유산 보존과 기록의 중요성을 어떻게 부각하는지, 언론 자체가 바라보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의 변화도 함께 탐색함으로써, 미디어의 책임성과 교육적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다(김정희, 2023).

본 연구와 유사한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정희(2023)와 서호준(201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연구 동향을 살펴본 오정심(2020)의 연구도 거론할 수 있으나 방법론과 대주제 측면에서 유사할 뿐, 미디어 경향을 다룬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김정희(2023)의 경우, 빅인즈를 활용하여 언론에 비친 무형문화유산 이미지를 연구했으며, 무형유산 외에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까지 3개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1시기(1990~2002년):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문화 공연', 2시기(2003~2015년): '세계로 확대되는 전통문화 공연으로서의 무형문화재', 3시기(2016~2022년): '무형문화재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예술 문화 공연'으로 각 시기를 구분, 특징을 명명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서호준(2019)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의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에서 무형유산 관련 키워드를 선별하여 키워드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52개 키워드들을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는데, 유네스코 등재 그룹(14개), 개별 무형문화유산 그룹(19개), 무형유산 관련 정책사업(12개), 문화재 활용 그룹(7개) 등으로 나누었고, 7개 상위 키워드가 포함된 유네스코 등재 그룹이 무형유산의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연구는 본 연구의 주제 및 방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는 무형유산 기록과 유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으며, 네트워크 분석 대신 빅인즈의 트렌드 분석, 관계도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언론이 바라본 대중적 방향을 파악하여, 대중이 무형유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의 기록과 조사 과정에서 미디어

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문화유산 보존 및 조사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무형유산의 정의와 사업 현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4항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의미한다.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산물인 무형유산은 조상들의 산업, 학문, 신앙, 멋, 생활양식 등으로 여러 곳에 남아 있는 문화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유지, 보존되었고 다양한 분야들로 나뉘어 기록과 조사, 교육, 전시, 공연, 교류를 통해 전승되었다. 관련하여 교육과 전시, 공연, 교류 등은 사회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여러 전승활동의 경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반면 기록과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통해 살펴보고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 기록과 조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 등으로 나뉘는데 이중 초기 법 제정 당시 불리던 명칭인 무형문화재는 여러 세대를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무형유산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나뉘는 항목은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다.

국내 무형유산 분야에서 지원사업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나, 규모나 지속성 등에서 공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주로 전통예술의 발굴 및 보존 등 기초 지원이 많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화와 대중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우선 공공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에는 기록과 조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 살펴보면 첫째,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이다.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이다. 이는 무형유산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기록보존을 위해 1995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록화 사업은 보유자(단체)의 기여능을 영상과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도서 발간을 추진한다. 그 외의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는 무형유산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다음, 문화재청의 경우에는 기록과 조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첫째, 무형문화재 연구 및 조사 지원으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유산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의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이수자 등 전승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전승활동을 장려한다. 또, 무형문화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무형문화재를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 지원금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의 경우, 전통공예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공예품 제작을 지원하여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공연 지원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공연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급을 돕고 있다. 전통문화교육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단체 등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단체를 지원한다. 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에서는 지

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전통문화축제에 지원금을 제공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급과 전승을 돕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발표하는 단체나 예술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경우, 전통예술 교육 및 전승 지원사업, 전통예술나눔 사업을 통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통예술을 배우고 전승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통예술교육 및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무형유산 분야에서 공공영역의 기록 및 조사 관련 사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무형유산 관련 지원사업(공공 영역)

기관명(가나다 순)	사업명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무형문화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무형문화재 연구 및 조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지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전통문화축제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통예술 창작 및 발표 지원사업
한국문화재단	전통공예품 지원사업
	전통문화교육 지원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 교육 및 전승 지원사업

다음으로 민간 영역에서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문화재단은 전통예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전통예술 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여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대중적 접근성과 보존성을 높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의 경우, 전통문화 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관련 학술연구를 지원하여 학문적 발전과 대중적 홍보를 도모하고 있다. 전통예술 보존 및 전승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예술과 무형유산 보존 활동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전승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롯데문화재단의 경우, 전통문화 예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예술의 창작 및 보급을 지원하여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계승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및 일반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정림건축문화재단의 경우, 무형유산 중에서도 전통건축 및 무형유산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건축과 무형유산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두 분야 간 융합 연구 제고와 더불어 각 분야의 학문적 및 실용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 보존활동도 지원하고 있는데,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림문화재단의 경우, 전통음식 관련, 문화 보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통음식 문화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데,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전통예술 후원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사회적책임활동(CSR)에 관심 있는 기업과 재정적 지원과 네이밍 스폰 등이 필요한 예술단체 간의 매칭과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전통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와 무형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전통예술 장학생 지원사업을 실시중이며, 전통예술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은 교육의 지원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전승을 돕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보존 프로젝트도 실시중인데, 이는 무형유산 보존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공모,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SK 문화재단에서는 전통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형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여 현대적 재해석과 대중적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통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무형유산의 국제적 보급과 글로벌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외 유한킴벌리의 경우, 전통 생태문화 보존사업을 실시중이며, 생태문화와 관련된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도 한다. 이러한 국내 무형유산 분야에서 민간영역의 지원 사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무형유산 관련 지원사업(민간 영역)

기관명(가나다 순)	사업명
롯데문화재단	전통문화 예술지원사업,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삼성문화재단	전통예술 지원사업,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아모레퍼시픽재단	전통문화 연구 지원사업, 전통예술 보존 및 전승 지원
유한킴벌리	전통 생태문화 보존 사업
정림건축문화재단	전통건축 및 무형유산 연구 지원, 전통문화 보존활동 지원
하림문화재단	전통음식 문화 보존 지원사업
한국메세나협회	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전통예술 후원 프로그램,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SK 문화재단	전통예술 장학생 지원사업

2) 법제도 및 가치인식 변화

무형유산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정책전개'에서 주요 변수들이 존재해 왔다. 정책의 초기에는 전승 주체의 세대전환으로 인하여 전승자 간의 지정과 관련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고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국가가 전승과정에 개입하는 체계로 시작하였다가 1993년 문민정부 등장으로 인하여 국가개입이 완화되는 추세로 되돌아 서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전환기 초기에 나타난 제도의 문제점 개선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다가 자율성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해 다시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통해 제도의 기능을 회복되기도 하였다. 그 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대응하고자 국가 간의 대응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문화다양성 증진과 전승공동체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되는 과정을 겪었다(조순자, 2019).

문화유산의 정책이 중앙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지방화,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변모하였는데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초기 역할이 중요하였고 그럼에도 초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야 문화예술의 격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부에서 문화의 상징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시기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문화주의와 복지를 표방하고 다양성이 중요시되면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지방문화 관련 정책이 부재를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의 문화유산을 다양화, 특성화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의 정책전개 과정에서 여러 주요 변수들의 등장으로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국가가 체계 완결성을 확보하였는가 하면, 국제적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수용하고 문화유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들이 있어왔다(채원호, 허만용, 2004). 주요변수 중 주목할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공동체란 무엇이며, 공동체의 참여는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하게 하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전승공동체'의 정의가 추가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또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국민공모 프로그램이 시행 예정되어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한 것은 새로운 정책적 시도로 보인다(김용구, 2023).

여러 각도에서 본 무형유산의 정책은 국가주도적인 방향에서 시작하여 국가와 시민이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지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문화유산 담론이 다양성 보다 통합의 당위성 강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국가, 시민간의 담론이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문화유산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변천과정에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으로 독립되었고, 2024년에는 무형유산법으로 개정되어 법적 체계가 발전해왔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60년간 무형유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문화유산을 유지,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며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변치 않았지만 최근 들어 2023년 문화재(cultural property)라는 명칭으로 대체되고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개념적 확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0. 29. 일부개정), 다시 말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무형)을 담은 보다 획기적인 인식으로 전개되었다.

그간의 무형유산의 60년간의 무형유산의 가치는 인식변화 측면에서 역사성, 연계성, 연속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신동욱, 2019). 즉, 기존의 문화유산을 볼 때 한국의 경우 국가의 정체성, 역사적 원형과 전통 또는 민족 전통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여 국가가 지정한 보유자에 의해 계승되고 있는가에 가치를 두는 반면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는 문화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을 강조하며 문화와 자연환경과의 연계성, 사회적 실천을 통해 전승되는 것에 가치를 두어 변천된 것을 알 수 있다. 무형유산의 변천과정에서 몇 가지 환경과 실정에 맞게 변화된 것을 살펴보면 우선 무형유산의 범주가 확대되었고, 원형(原型)과 전형(典型)으로 원칙기초의 변화되었으며 지정과 전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시행하여 왔다(김지현, 2021).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위탁 운영중인 뉴스빅데이터분석 공공포털인 빅카인즈를 통해 무형유산의 기록에 관하여 미디어 경향을 분석하였다. 빅카인즈를 활용한 미디어 경향분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 운영 및 검증된 데이터 제공으로 신뢰성이 높고 사용법이 간단하고 분석결과와 시각화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나운빈, 2023). 해당 사이트의 소개란에 따르면, 뉴스수집시스템, 분석시스템, 저장시스템 등으로 기능이 구성돼 있으며, 저장된 뉴스 분석 정보는 국민 언론사 학계, 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빅카인즈는 국내 뉴스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있고, 텍스트 마이닝 역시 직관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계에서는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빅카인즈'를 검색하면 학술지 305건, 학위논문 106건이 나오는데(2024년 8월 기준), 연구 주제 역시 다양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아니더라도 활용 폭이 넓고 계속 확대되는 중이다.



그림 1. 빅카인즈의 검색어 기준 및 언론사 설정 과정

1. 연구 대상(문화유산 빅카인즈 기록, 조사)

본 연구는 신문사, 방송국 등 104개 언론매체가 연동된 빅카인즈에서 ‘무형유산 기록’과 ‘무형유산 조사’ 키워드 2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2024년 3월 기준). 해당 키워드의 관련 기사 수집연도는 무형유산 기사가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설정하였고, 10년 단위로 나누어 2000~2009, 2010~2019, 그리고 2020~2024 현재까지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관련 수집 기사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연도별 키워드 검색량

연도	키워드: 무형유산 기록	키워드: 무형유산 조사
2000~2009	197건	126건
2010~2019	1,050건	783건
2020~2024	533건	439건

2. 자료분석

1) 키워드 트렌드

시기별 주요 키워드의 출현 기사량을 분석하여 무형유산 관련 담론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10년 단위의 장기적 추이 분석을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시기별로 해당 키워드의 기사량을 그래프로 도출했다. 단기간의 이슈일 경우에는 일간 및 주간, 중장기 이슈일 경우에는 월간이나 연간을 선택해서 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세로막대형이 기사량의 연도별 흐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시대별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연간 기사량으로 설정했다.

2) 관계도 분석

키워드 검색 후, 상위 100건의 뉴스 중에서 추출한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그래프와 표로 나타내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시기별 무형유산 둘러싼 주변 환경 및 관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형태로 개체명(인물:노란색, 장소:녹색, 기관:파란색, 키워드:빨간색)을 색깔별, 가중치별(가중치가 높은 키워드일수록 커다란 원으로 표현) 시각화를 제공한다. 가중치를 낮추면 개체명이 늘어나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가중치를 높이면 개체명이 줄어서 네트워크가 간결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논문 등에 기입할 때, 적정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3~4 수준이며, 개체명별로 세부 키워드를 보여주기도 한다.

III. 연구 결과

1. 키워드 트렌드(2000~2024)

연도별 보도량을 살펴본 키워드 트렌드에서는 검색어 '무형유산 기록'의 관련 기사가 '무형유산 조사' 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무형유산 기록' 보도량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언론의 관심이 미미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02~2003년에 소폭 증가가 있었다. 다만, 이때는 무형유산 기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되기 전의 상황으로 보도량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2008년 이후부터 관련 보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2013년에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유네스코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 활동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무형유산 기록과 보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2014년 보도량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점차 감소세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국제적 무형유산 등재 완료 후, 관련 이슈 자체가 줄었고, 이에 언론의 관심 역시 일시적으로 정체되었다.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도량은 급감과 반등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2021~2022년에 언론 보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특정 무형유산의 신규 등재나 보존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및 영상 콘텐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 종식 후, 2023년 이후에는 보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는 무형유산 기록에 대한 특정 이슈들이 소멸했던 지난 상태로 되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2000~2024 기사수 (무형유산 기록)

다음으로, 무형유산 조사 관련 기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까지의 언론 보도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2000년~2007년)에는 관련 언론 보도량이 매우 적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 동안 무형유산 조사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 수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 2008년부터는 언론 보도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2012~2013년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와 정부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무형유산 조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보도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4년에 정점을 찍고 2017년까지 보도량은 다소 감소하며 정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당 시기 동안 조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감소하거나, 무형유산 조사가 보편화되면서 언론 보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보도량은 다소 불규칙한 변동을 보인다. 이 시기 동안 특정 무형유산과 관련된 조사 이슈가 주기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특히 조사 관련 보도량이 크게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두 개의 검색량은 이처럼 공통점이 있는데 각각 2023년 이후 보도량은 급감하여 최저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무형유산 조사와 관련된 언론의 관심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다른 사회적 이슈에 밀려난 결과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2024년의 데이터는 연도 중반까지만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감소 폭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심은 201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무형유산 보존 정책과 미디어 이슈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23~2024년에 급감한 보도량은 향후 무형유산 기록과 관련된 이슈가 다시 주목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뜻한다. 다만 무형유산 기록과 조사 모두 2024년의 전체 데이터가 없는 연도 중반까지만 수집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림 3. 2000~2024 기사수 (무형유산 조사)

2. 관계도 분석

1) 2000~2009년 관계도 분석(기록과 조사): ‘중요성 인식기’

관계도 분석은 3개의 연도 구분으로 나뉘, ‘무형유산 기록’ 키워드와 ‘무형유산 조사’ 키워드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 비교하였다. 3개의 시기는 기사량, 주요 기사내용, 관계도 분석 내용을 감안해 각각, ‘중요성 인식기’(2000~2009), ‘성과발굴 및 확산기’(2010~2019), ‘패러다임 전환기’(2020~2024)로 명명하였다. 우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무형유산 기록’과 관련된 주요 주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4(좌)를 보면, 중심에 위치한 핵심 키워드와 그 주변에 연결된 기관, 인물, 주제 등 여러 유형의 노드가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기관과 인물, 주제 노드의 관계는 그들의 특성을 시각화하여 관계이해에 도움을 주며, 또, 기관과 인물, 주제의 관계 자체에 의미를 두어 효과적인 기술을 함으로써 분석에 유의미한 구조나 파악

을 하는 방법이다. 우선, 인물을 나타내는 노란색 노트에는 허균, 심기섭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성소부부고(惺所覆顔藁; 조선 중기 문신 허균(許筠)의 시문집)에 단오제를 구경했다는 허균의 역사적 기록과 관련된 것이고, 이와 관련, 심기섭은 강릉시장으로써 재임시절인 지난 2005년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인류 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최종 등록된 소식이 언론을 타면서 언급되었다(강릉도민일보 2005). 즉, 한 인물은 강릉단오제라는 무형문화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현대적 사건으로써 기록된 것이고, 또 다른 인물은 그러한 추진 과정에서 단오제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으로써 함께 회자된 것이다. 지자체의 장과 같은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학술연구나 정책 입안,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에서 중요한 허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결성 측면에서는 허균, 심기섭 둘 모두와 다른 주체 간의 연결성이 많은 것으로 볼 때, 두 인물이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행정 기관 간의 협력을 매개했던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형유산 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러 색상의 노트들이 다양한 연결을 맺고 있는 점을 볼 때, 무형유산 기록은 단순한 연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학술적, 문화적 협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녹색 노트는 국가, 지자체, 도시명 등이 쓰여 있는데 문화유산의 공동 연구나 충주세계무술연맹 등의 글로벌 대회 개최 등의 기사와 함께 언급되었다. 파란색 노트는 관계부처,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학술적 주체를 나타내는데,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해 연구와 기록을 담당한 주체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무형유산의 보존과 기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조직들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이 연결된 점은, 해당기간동안 무형유산 기록이 중요한 문화 정책의 일부였음을 뜻한다. 논문, 학회, 연구소와의 연결을 통해 무형유산 기록에 대한 학술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빨간색 노트는 관련 정책 기관, 위원회 등 행정적 역할을 맡은 주체들과 이사장, 실학자, 예능보유자 등이다. 이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실행에 관여한 단체일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국사성황신, 단오제, 강릉시청 등 장르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키워드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 '무형유산 조사' 키워드의 관계도 분석에서는 노란색 인물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나왔다. 정몽헌의 경우에는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던 상황이 언급된 것이며 문화유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었는데, 당시 현대 그룹의 수장으로서 금강산 관광개발과 북한의 문화유산 개발이 함께 언급된 간접적 연관에 따른 것이다. 그밖에 김대중, 장택상, 윤보선 등 정치인들은 더욱 관련성이 떨어졌고, 이들은 모두 오늘의 역사 소식을 전하는 코너형 기사에서 다뤄진 키워드이다. 김남일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소설가 혹은 지역사회 내 전문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소리꾼 등이 출연한 문화 네트워크 행사 등에서 함께 언급되었다. 강혜숙은 국회의 원으로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련 실태와 법제도 개선을 제기하면서 언급되었다. 녹색 장소에서는 일본, 중국, 강릉시, 미국의 순으로 관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주로 무형유산 관련 관광 및 박물관 설립 등의 벤치마킹 사례나 제주해녀와 일본아마(海女)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이 기사화된 것으로 보인다(제민일보 2009). 중국의 경우, 동북공정에서 비롯된 고구려사의 왜곡으로 인한 국내 반발, 김치 등 국내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경계 및 질투와 자국 문화의 모방이라는 억지 주장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한겨레신문 2008). 강릉시는 앞서도 언급한 강릉단오제 개최로 인한 홍보성 기사가 많으며, 미국은 인권운동가 팻컴 엑스,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 등 미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후 단순 조명 형태의 기사로 인한 것이었다(강릉도민일보 2009). 파란색 기관에서는 무형유산의 지원 및 심사, 반환, 등재 등 일상적 업무로 언급된 유네스코, 문화재청, 외교교통상부, 문화재위원회, 국립국악원이 있고, 그밖에 열린우리당, 새정치국민회의 등 정치단체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신탁법,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시도 등으로 인한 당 차원 혹은 소속 의원의 정치활동에 따른 것이다. 빨간색 키워드에서는 앞서 '무형유산 기록' 분석처럼 단오제가 가장 많은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대통령, 문화재보호법 등이 언급된 가운데, 앞서와 달리 한라산, 지방장치, 소리꾼 등의 키워드가 보이고, 반대로 임

진왜란, 국사성황신, 훈민정음 등은 누락되었다. 특히,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장 등 앞서와 달리 그룹화된 키워드가 있었다. 이는 공무원으로는 첫 선정된 강 모씨의 제4회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선정, 4대강 사업 관련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문화재 파괴 반대 목소리, 승례문 화재 소식 등이 함께 언급된 것이다(경향신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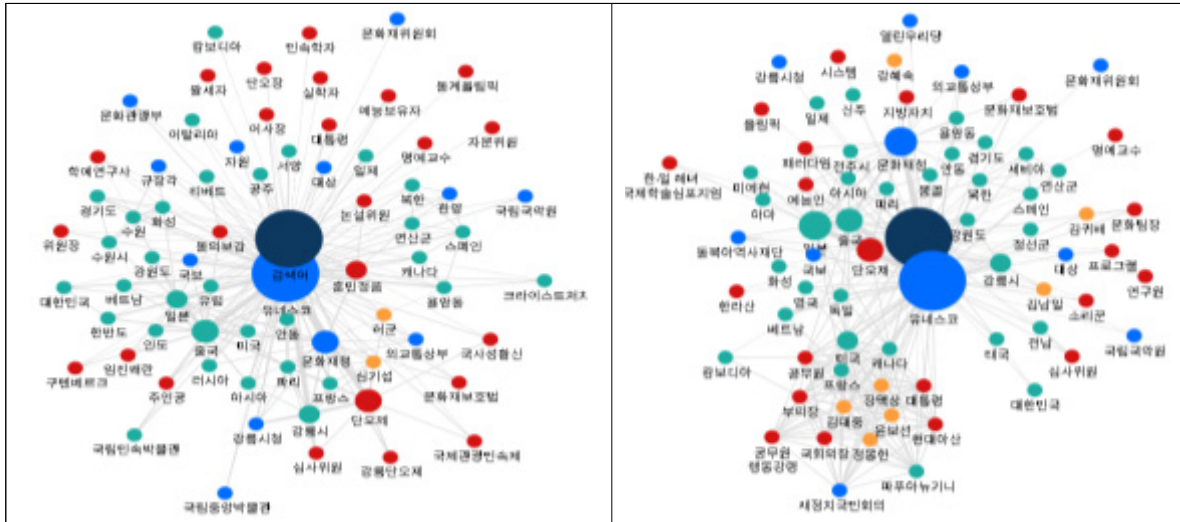


그림 4. 2000~2009 관계도 분석 시각화 결과(좌: 무형유산 기록, 우: 무형유산 조사, 가중치 30이상)

표 4. 관계도 분석표(검색어: 무형유산 기록 & 조사, 2000~2009, 가중치 3이상, 상위 20위)

무형유산 기록	유형	가중치	무형유산 조사	유형	가중치
유네스코	기관	84	유네스코	기관	72
문화재청	기관	25	문화재청	기관	28
중국	장소	25	일본	장소	27
단오제	키워드	22	중국	장소	24
일본	장소	19	단오제	키워드	21
강릉시	장소	16	강릉시	장소	12
훈민정음	키워드	16	미국	장소	11
대한민국	장소	10	강원도	장소	10
파리	장소	10	공무원	키워드	10
경기도	장소	9	지방자치	키워드	9
아시아	장소	9	문화재보호법	키워드	9
미국	장소	9	북한	장소	7
화성	장소	8	캐나다	장소	7
수원	장소	8	파리	장소	7
강릉시청	기관	8	독일	장소	7
용암동	장소	8	아시아	장소	6
강원도	장소	7	프랑스	장소	6
일제	장소	7	국립국악원	기관	5
동의보감	키워드	7	국보	기관	5
러시아	장소	7	베트남	장소	5

2) 2010~2019년 관계도 분석(기록과 조사): '성과발굴 및 확산기'

2010년대에서는 '무형유산 기록' 키워드의 관계도 분석에서 인물을 나타내는 노란색 노드로 조승연, 나선화, 이삼열이 나타나고 있다. 조승연은 작가이자 유튜버, 방송MC 등으로 유명한데, 아시아 유일의 무형유산 영화제가 개최된 당시 세계문화전문가로서 당시 무형유산의 기록 가치를 높이는 강연을 진행하면서 기사에 언급되었다. 나선화는 당시 문화재청장(2013~2017)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교육방송공사와 아시아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 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언급되었다(광주일보 2018). 이삼열은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으로 남북의 문화 동질성회복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무형유산 보호 협력회의를 개최한 것이 언급되었다. 즉, 조승연은 당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영화행사에 기록된 것이고 나선화는 당시 기관장으로서 기관과 함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문화재청에 대한 평가 및 성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기록 분야에 앞서 있다는 것과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에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이 기사에 언급되었다. 또 다른 인물인 이삼열은 남북교류에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고 당시 남북교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보도로 언급되었다. 이는 문화유산의 기록이 당시 남북교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정치적 역할을 끼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관계도 분석의 시각화 결과에서는 클러스터 그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국가, 지자체, 도시명 등이 쓰인 녹색 노드에서 전곡리와 아제르바이잔이 나타났고, 이들과 연결된 형태로 관계부처인 파란 노드의 문화재청이, 그리고 인물 등이 나타난 노란 노드인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정책, 기관 관련 빨간 노드인 5.18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성은 당시 유네스코 유산 중 세계기록유산으로 난중일기가 등재 신청됨에 따라 이순신이 연결되고,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도 빈곤 퇴치 모범사례로 기록되어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다(코리아넷뉴스 2013). 녹색 노드인 전곡리는 유네스코 지정 한탄강 국가 지질공원 제7호로 등록되었고 아제르바이잔은 당시 한국의 김장문화가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어 관계도가 그룹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이 당시 유네스코 등재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기관과 인물, 주체 등이 각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미디어의 보도 역할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녹색 노드가 집중된 안동의 경우, 안동시는 세계문화도시로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으로 나타났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유교책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면서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안동의 유교문화와 더불어 한국의 불교 문화 또한 이 시기에 충북 보은 법주사, 충남 공주 마곡사, 전남 해남 대흥사, 순천 선암사, 경북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경남 양산 통도사 등 7개의 사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연합뉴스 2018).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그룹화된 키워드들이 무형유산의 기록과 조사 키워드 모두에서 동일한 기사보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무형유산 조사 관련하여 인물을 표기한 노란 노드에서 마틴은 국제저널 '무형유산' 편집위원으로 당시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기회를 가져 잡지인 '무형유산'이 국제적인 저널로서 한국 이미지 고양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보은신문 2012). 이춘희를 검색하면 '유네스코 등재된 '아리랑' 중에 빼앗길 뻔?'이라는 기사를 보면 중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세계공동의 유산으로 전승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보도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2). 당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된 시기이다. 또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인간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둘러싼 심사형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나가수' 식의 평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또한 유파 인정에 유무와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그간의 전승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률로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동아일보 2012).

이처럼 미디어 보도 양상에서 기록과 조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 키워드에 대한 보도가 비교적 동일한 이슈로 다루어진 점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기록에서는 장소 노드의 분포도가 넓게 펼쳐져 방사형을 보인 반면, 조사에서는 특정 클러스터로 나타나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무형유산 기록 관련 방사형 분포라고 해

서 클러스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형유산 조사의 관계도보다 더 많은 클러스터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소를 표시하는 녹색노드인 보은군은 인물의 마틴에서와 접점이 있는데 학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범주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8년도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당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노드인 장소 중 한반도는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남북문화유산 교류사'를 발간하였고 당시 '씨름'은 남북한이 처음으로 공동 등재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김장문화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후 북한에서도 '김치만들기'를 등재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2015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외 동남아시아, 프랑스, 파리, 빈트후크 등은 보은군과 한반도의 산사, 김장과 연관된 검색어들이다(연합뉴스 TV 2015). 기관을 표시하는 파란색 노드인 문화재위원회는 '울산쇠부리소리'와 같은 숨은 무형유산을 찾기자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맞이했다. 한국문화의 대표 전통문화로서 김장. 아리랑과 같은 문화재에서 지역의 숨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념물유적연합회를 검색하면 기사에서 문화전쟁터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각국의 문화유산이 교육, 문화, 과학과 연계되어 세계유산 등재 이후 벌어진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이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으로 떠오르며 관광객 증가의 효과로 인해 각국에서 마치 올림픽을 하듯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국제기념물 유적연합회와 한국국학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등의 기관이 안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동아일보 2014).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유산 영구보존 가능한 수장고부터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안동의 선비문화, 유교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엿보였다. 빨간색 키워드인 전문학자는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연구기록과장, 광역단체장 키워드는 단순 인사기사로 연관이 거의 없었다. <그림 5>의 관계도 분석 시각화 결과에서는 기록 분석과 달리, 조사 분석에서 인물 노드가 매우 적었는데, 해당 기사들이 지역성, 구체성, 대중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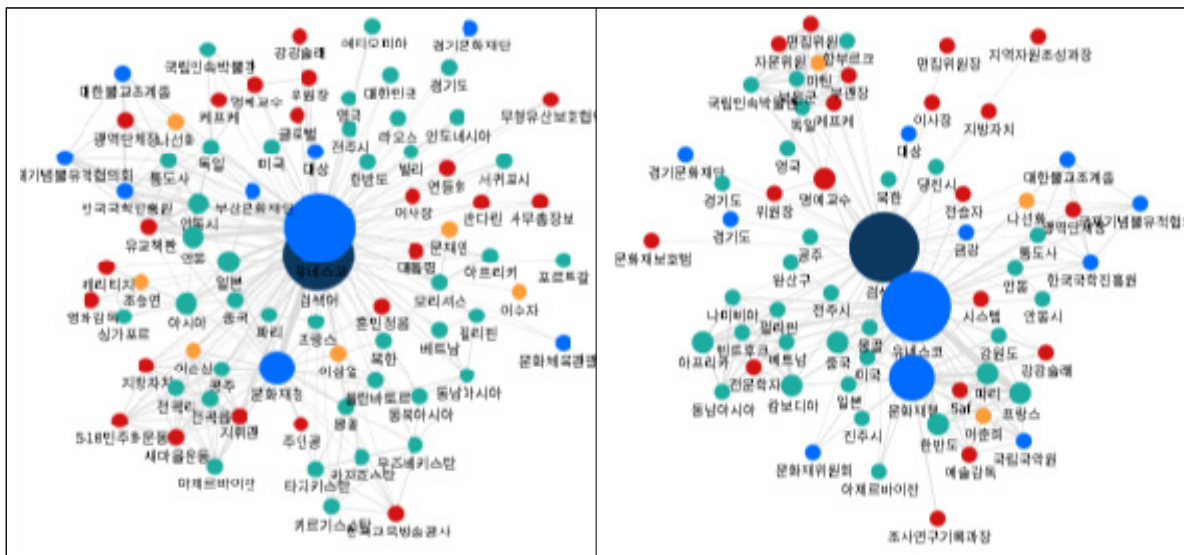


그림 5. 2010~2019 관계도 분석 시각화 결과(좌: 무형유산 기록, 우: 무형유산 조사, 가중치 30이상)

표 5. 관계도 분석표(검색어: 무형유산 기록 & 조사, 2010~2019, 가중치 3이상, 상위 20위)

무형유산 기록	유형	가중치	무형유산 조사	유형	가중치
유네스코	기관	83	유네스코	기관	65
문화재청	기관	33	문화재청	기관	40
안동	장소	17	프랑스	장소	16
일본	장소	17	파리	장소	16
안동시	장소	15	명예교수	키워드	10
아시아	장소	14	중국	장소	10
한국국학진흥원	기관	12	아프리카	장소	10
유교책판	키워드	12	한반도	장소	10
몽골	장소	9	캄보디아	장소	10
북한	장소	8	강원도	장소	9
중국	장소	8	베트남	장소	9
통도사	장소	7	독일	장소	9
아프리카	장소	7	필리핀	장소	9
모리셔스	장소	7	일본	장소	9
이순신	인물	7	동남아시아	장소	8
아제르바이잔	장소	6	케프케	키워드	8
명예교수	키워드	6	나미비아	장소	8
새마을운동	키워드	6	국립민속박물관	장소	8
공주	장소	6	편집위원	키워드	6
지휘관	키워드	6	당진시	장소	6

3) 2020~2024년 관계도 분석(기록과 조사): ‘패러다임 전환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물들은 이철우밖에 없는데, 관계도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중심적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지사인 그는 경북이 지닌 문화 자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도청 내 세계유산 전담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내방가사와 삼국유사의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올해 하회별신굿 탈놀이와 예천청단놀음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조금씩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세명일보, 2023). 또한, 프랑스와 파리, 중국, 모로코, 일본 등은 국제적 무형유산 교류와 협력의 배경이 되는 국가들로서, 한국의 무형유산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녹색 장소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대한민국, 중국, 모로코, 안동, 일본, 전주시, 부여군 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중국은 장가계의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국내에서는 전북 고창군의 서해안 지질공원의 지정을 위해 2023년 열린 모로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 인증서를 받은 보도 기사에 기인한다. 그 외에 전주와 부여군, 안동 역시 전통문화와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하는데, 전주는 천년한지관, 한지살리기재단 등이 있어 이를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중이고(연합뉴스, 2023), 고(故) 전주에서 한지 제작 장인이 터전을 잡고 관련 일을 하고 있음이 인터뷰 기사 등으로 주로 언급됐다. 부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정립사지를 포함한 2023 세계유산축전 관련 기사를 통해 주로 언급됐다. 이러한 지역들은 무형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보존하

기 위한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이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경제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파란색 기관에서는 외교부, 국보, 문화재위원회, 한국국학진흥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앞서의 연도에서도 나타난, 국내 무형유산 기록과 전승, 국제적 협력을 위한 주요 조직으로, 외교부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알리거나 유네스코 등재 관련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지원 역할로써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유네스코 사업 관련 기사에서, 등재 및 지정 지자체에 인증서의 전달 등 통상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문화재 위원회는 각 지역의 무형유산 공모 및 심의, 현장조사와 기록검토를 하는 곳으로써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무형유산 기록을 위한 학술적 연구와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유네스코 지정유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수장고에 약 60만점의 국학자료를 소장, 관리하면서 언급되고 있다. 국보는 2024년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문화재를 언급하거나 국보 1호 승례문의 방화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빨간색 키워드는 강강술래, 연등회, 장군제, 국가유산기본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9년과 2020년에 각각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강강술래와 연등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 전통 의식과 춤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낸다. 강강술래는 공동체 의식과 전통적 놀이문화의 상징으로, 연등회는 불교 전통을 기념하는 행사로 한국인의 정신적 유산을 담고 있음이 주로 언급됐다. 장군제는 부여군의 세도 가회리 장군제가 2024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으로 언급되었으며, 마을의 잡귀를 물리치고 평안을 염원하는 한국의 민속 신앙과 공동체의 의례적 전통을 상징한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4년 5월 제정 후, 문화재청의 국가유산청 명칭 변경과 더불어 해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중국의 문화공정 등 산적한 현안과 새로 출범할 정부 기관에 대한 기대 등이 언급되었다.

노란색 인물과 관련하여 상위 20위 내에 포함된 키워드는 없었고, 그밖에 김양희 前 충북도의회 의장이 2023년 11월 충북문화재연구원장으로 취임한 것과 함께, 한상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민속예술축제와 관련하여 보고서 및 인터뷰 멘트 등으로 언론에 등장했다. 따라서 무형유산 조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연구자 및 전승자의 이름이 주로 언급되지 않았고, 이를 미루어, 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기관에서는 문화재청이 중심에 자리하며, 그 외 유네스코, 국립고궁박물관, 한국문화재단 등과 같은 문화재 관련 기관이 강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형유산 조사가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관리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최근 들어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유네스코와의 연계는 국내 무형유산이 국제적 무대에서 인정받고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웹툰 원작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소덕동 팽나무로 널리 알려진 창원 북부리의 팽나무가 지난 22년 8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실이 언급되었다(노컷뉴스, 2022).

또한, 녹색 장소에서는 강원도, 안동, 전주시와 같은 특정 지역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무형유산 조사 활동이 지역적 특성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안동은 내방가사와 하회선유줄불놀이가 미래 무형문화유산 국비 지원사업에 연말에 선정되면서 관련 기사가 언급되었고(매일신문, 2022), 전주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있는 곳으로, 유산원 측의 k-무형유산 공연 등 국제교류 사업의 국가별 개최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밖에 전통연출가 발굴 공모전, 전통공예 작품 전시, 그리고 소속 연구원의 학술대회 발표 등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었다(아주경제, 2022). 이러한 지역적 연결은 조사 대상이 되는 무형유산이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고유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사 및 기록 활동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강

원도와 안동은 전통문화 자산의 보고로서 다양한 무형유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조사와 기록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와 협력이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빨간색 키워드는 무형유산 기록처럼, ‘강강술래’, ‘연등회’ 등 전통적인 무형유산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와 같은 현대적 키워드가 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무형유산 기록의 결과보다는 내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각 지역별로 무형유산 관련 오프라인 축제 및 행사가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주최 측의 대표자 이름이 거론되는 형태로 이사장 키워드가 늘었는데, 예를 들면, 경남 합천대평군물농악 행사 개최에 따른 합천대평군물농악보존회(이사장 김성만)가 함께 언급되는 방식이었다(경남도민신문, 2024). 이밖에, 신규로 추가된 또 다른 키워드인 스토리텔은 스토리텔링의 축약어로서, 인물, 장소, 역사, 자연 등 다양한 지역별 소재에 대한 활용 전략을 언급하는 사업, 포럼, 행사 자리에서 지역 무형유산의 상품화, 관광화 필요성과 전략으로 자주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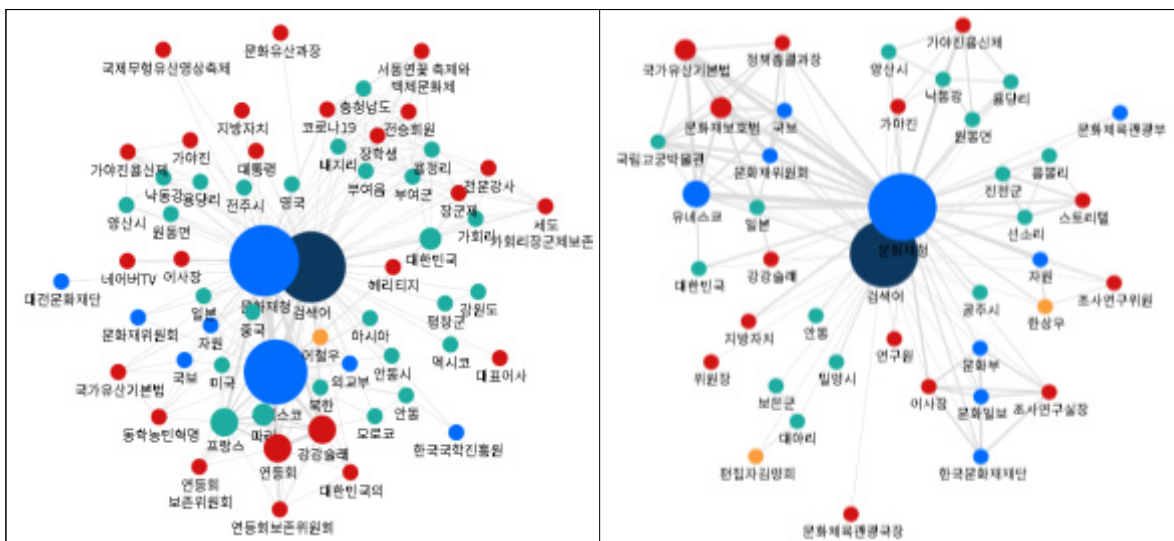


그림 6. 2020~2024 관계도 분석 시각화 결과(좌: 무형유산 기록, 우: 무형유산 조사, 가중치 30이상)

표 6. 관계도 분석표(검색어: 무형유산 기록 & 조사, 2020~2024, 가중치 30이상, 상위 20위)

무형유산 기록	유형	가중치	무형유산 조사	유형	가중치
문화재청	기관	73	문화재청	기관	64
유네스코	기관	21	유네스코	기관	57
국가유산기본법	키워드	12	연등회	키워드	22
문화재보호법	키워드	12	강강술래	키워드	19
자원	기관	9	프랑스	장소	16
국보	기관	7	파리	장소	14
일본	장소	7	대한민국	장소	10
이사장	키워드	7	아시아	장소	8
문화재위원회	기관	7	자원	기관	7
국립고궁박물관	장소	6	부여군	장소	7
대한민국	장소	6	모로코	장소	7
가야진용신제	키워드	5	코로나19	키워드	7
대야리	장소	5	강원도	장소	6

무형유산 기록	유형	가중치	무형유산 조사	유형	가중치
선소리	장소	5	용정리	장소	6
한국문화재단	기관	5	안동	장소	6
진천군	장소	5	연등회보존위원회	키워드	6
강강술래	키워드	4	동학농민혁명	키워드	5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4	전주시	장소	5
문화부	기관	4	평창군	장소	4
가야진	키워드	4	북한	장소	4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빅카인즈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 보도의 흐름과 주요 키워드 기반으로 시각화한 결과를 분석하였고, 결과적으로 무형유산 기록 보도량은 총 1,780건, 무형유산 조사 보도량은 1,348건이 나왔으며, 단순보도량을 비교하자면 기록 관련 기사량이 432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유산과 관련된 미디어 보도의 변화추이는 기록과 조사 관련하여 각 시기별로 세 부류로 나누어 경향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키워드 트렌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록 관련 키워드 트렌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2012년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있으며 국내외 문화유산 이슈와 국제적 활동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과 영상콘텐츠 증가로, 이에 따라 기사량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관련 키워드 트렌드는 초기 단계에 매우 미미하다가 2012년 이후 무형유산의 조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고,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보도량이 급등하였다. 2020~2024년까지의 기록, 조사 구간이 비교적 짧은 관계로 다소 한계가 있지만 2022년 조사 보도량 급등의 이유는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를 알리는 소식 형태의 기사, 그리고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청으로 바뀌는 것을 기점으로 그간의 역할과 향후 방향 등을 짚어본 기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록과 관련하여 K-컬처의 보도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내에서는 지역문화재 발굴이 유네스코 관련하여 증가하였다는 점과 국외에서는 한국문화의 세계적 관심이 가중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은 관계도 분석 결과이다. 2000~2009년(중요성 인식기)까지의 기록과 조사 관련하여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을 핵심단어로 지역의 단체장이나 공직인물이 학술연구, 정책입안, 관련 단체협력 등으로 중요한 허브역할을 담당하였고 다양한 주체들 간에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국립민속박물관 등이 기록 담당주체라는 것, 또 같은 시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다소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물이 검색되었고 단순 오늘의 역사 소식과 함께 다뤄진 키워드들도 있었다. 연결성 측면에서 일본, 중국, 강릉의 경우 당시 동북공정이나 해외의 문화유산들, 벤치마킹 사례들이 관련된 것으로 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관심사가 반영된 기사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2010~2019년(성과발굴 및 확산기)까지의 기록과 조사 관련하여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인물 키워드가 가장 많은 구간이기도 하다.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또는 지역단체장, 역사적 인물, 정치적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더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010년 이전과 2019년 이후의 시기 간 후자에 인물 노드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은 보도량의 감소가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이 기간, 산사 등 주요 국내 문화유산 장소가 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들이 다수 있었고 특히 기록 분야에서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인물들이 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문화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계도 시각화 결과와 분석표를 통해 기관과 정책이 상호협력하여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2020~2024년(패러다임 전환기)까지의 기록과 조사 관련하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여기서는 인물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연구자 및 전승자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중심 인물들의 부재로 볼 수도 있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가 약해진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2. 논의

본 연구는 무형유산의 기록과 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감안해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기록과 조사 키워드 모두의 공통점은 정부기관과 정책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과 조사의 전반적인 흐름이 무형유산 정책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 문화유산 이슈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할 경우,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유산청, 국립국악원, 한국국학진흥원 각 지방자치단체,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위원회 등 많은 기관들의 정책이 미디어 보도에 주요 영향을 주고 있고, 문화유산 기본법이나 유네스코 관련 법령 등의 법제도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들 정책 및 제도는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정기적인 발생이 어려우므로, 문화유산청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날 행사와 같은 보도자료나 캠페인 등 미디어가 무형유산에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이벤트 개최가 계속 필요하다. 둘째로, 기록과 조사의 차이점은 관계도의 이미지에서 시각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클러스터별로 분석해 보면 기록과 조사의 차이점은 선명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그럼에도 수치적으로 기록이 조사보다 기사량이 많았다는 점을 보면, 문화유산 기록 분야는 기본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기사가 나가는 반면, 조사 분야는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이나 등재 같은 이슈 발생시에 관련 기사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록 분야가 조사 분야보다 미디어 보도 경향에서 안정적 정보제공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록 분야는 대중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사 분야보다 흥미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단순 기록사업이 아닌, 기록물을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중적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함께 기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기관과 연계된 부분에서는 국내무형유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관별, 지역적 연결은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고유성이 반영된 만큼 지역사회의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대중적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유대감 강화, 지역에 대한 자부심 제고 등 사회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지역신문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지속 가능한 전승에 도움이 될 만한 양질의 기사를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언론의 역할 강화 및 책임에 관한 것으로, 언론사의 기본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무형유산 보존과 기록의 중요성을 어떻게 부각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인식과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 및 이미지 변화도 함께 달라진다. 미디어 보도는 무형유산 정책 수립과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는데, 전주시와 안동시의 지역 축제 및 유산 활용 사례는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좋은 예시이다. 이러한 사례의 무형유산 기록 및 조사는 지역 경계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간 역할을 하며, 전통문화와 현대 사회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자료만 뿌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학술대회와 답사를 지역 언론사가 직접 개최하게 하거나 기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일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계점도 있는데, 미디어 보도가 무형유산에 관한 실제 대중의 인식 변화나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전문가 인터뷰나 기사에 달린 댓글분석 등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송정훈(2018). **한국 무형문화재의 정책과정과 나아갈 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23). 한국 언론 보도에 비춰진 무형문화유산 이미지 연구 - 1990~2022년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15, 261-294.
- 김지현(20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35(2), 31-57.
- 김용구(2023). 2000년대 이후 한국무형문화재정책의 전개과정. **무형유산학**, 8(1), 1-31.
- 나운빈(2023). 오디오북의 미디어 경향 분석 : 빅카인즈 분석을 중심으로. **출판잡지학회**, 31, 29-46.
- 서호준(2019). 빅데이터 기반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분야 최신 이슈 도출. **국립무형유산원**, 6, 151-183.
- 신동욱(2019). 한국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치변화와 지속가능성. **비교민속학**, 70, 271-299.
- 오정심(2015). 생태계적 방식에 의한 무형문화유산 체계 연구 - 자생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48(3), 30-45.
- 오정심(2020).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체계 분석. **국립무형유산원**, 8, 93-127.
- 조순자(2019). 2000년대 이후 한국 무형문화재제도 변화의 특징과 요인 분석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 **무형유산학**, 4(2), 239-260.
- 채원호, 허만용(2004). 지방정부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조직의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15(1), 167-190.
- 한희정, 김태영, 김용(2016). 다중개체모형을 적용한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요소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50(3), 329-359.
- 무형유산소식. (2024. 08. 20.) 유튜브 플랫폼 속의 무형문화유산 https://www.unesco-ichcap.org/board.es?mid=a20501020000&bid=A212&act=view&list_no=20436
- 강원도민일보 (2005. 12. 23.). '강릉 단오제 원형 보존·세계화 방안' 세미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34154>
- 제민일보 (2009. 10. 06.). 잠너 문화 이상의 것을 봐야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274>
- 한겨레신문 (2008. 08. 05.). "우리 문화 도둑질" 중국 반한감정 고조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302636.html
- 강릉도민일보 (2009. 11. 26.). 강원 10대 브랜드 사업 이턴 성과 거뒀습니다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41325>
- 경향신문 (2004. 08. 04.). '대한민국문화유산상' 제정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0408041848071>
- 광주일보 (2018. 08. 30.). "무형유산 영화로 감상하세요" http://www.kwangju.co.kr/news_view.php?aid=1535554800640112168
- 코리아넷뉴스 (2013. 06. 20.).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769>
- 연합뉴스 (2018. 06. 30.). 세계유산 등재된 산사7곳, 역사와 특징은 <https://www.yna.co.kr/view/AKR20180630042400005>
- 보은신문 (2012.02.16.). 국제저널 '무형유산' 편집위원 보은 답사 <http://www.boeuni.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48>
- 동아일보 (2012.12.07.). 유네스코 등재된 '아리랑' 중에 뺏길 뻔?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102201>
- 동아일보 (2012.02.29.). 인간문화재를 노래 접수 매겨 '나기수' 식으로 뽑겠다나...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20229/44402866/1>
- 연합뉴스TV (2015. 12. 03.). 북한 '김치만들기'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151203006500038>
- 동아일보 (2014. 07. 05.). 문화전쟁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705/64959595/1>
- 세명일보 (2023. 03. 28.). 경북, 세계유산 寶庫 'K-Heritage' 육성, http://www.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idx=191290
- 연합뉴스 (2023. 10.03.). '10월10일 한지의 날'...한지살리기재단, 다양한 행사 마련 <https://www.yna.co.kr/view/AKR20230927147800371?input=1195m>
- 아주경제 (2022. 09. 14.). 영상 축제·국제 교류 통해 'K-컬처 뿌리' 무형 유산 알린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4152139104>
- 노컷뉴스 (2022. 08. 24.).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된다...30일 지정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07153>
- 경남도민신문 (2024. 07. 09.). 경남 무형유산 '합천대평군물놀이' 공개행사 개최.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9581>
- 매일신문 (2022. 09. 29.). 안동 '하회선유출몰놀이·서원제향의례' 등 문화재청 육성 사업 선정. <https://www.imaail.com/page/view/2022092909294457204>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Media Reporting Trends on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ing and Research -

Eunpa Joung* Sejo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media reporting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reby identifying the changes in media trends over the 10-year period from 2000 to 2024. This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we attempted a long-term trend analysis. Second, we objectively analyzed and visualized data through BigKinds. Third, we attempted to compare the contents reported centered on the 'recording' and 'investig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urth, we provided implications that can reflect public interest in establishing cultural policies.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article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sing the text mining method through BIGKinds, a news big data portal operat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The research subjects collected related articles with two keywords: 'reco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vestig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BigKinds, which is linked to media companies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stations.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1,780 and 1,348 cases, respective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2000–2009, 2010–2019, and 2020–2024. The detailed data analysis method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relationship analysis, keyword trend, and related word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early 2000s, there were many reports centered on domestic issues such as domestic policymaking centered 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the Northeast Project centered on UNESCO. After that, in the 2010s, reports were centered on cultural heritages that announced UNESCO listings, the roles of experts and local communities were highlighted, and issues such a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related t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tinued to expand. Recently, in the 2020s, related articles have decreased relatively due to the cancellation of performances, exhibitions, and education due to COVID-19, and articles related to the National Heritage Basic Act filled the gap, and in the midst of this, recording and research activities utilizing digital technology stood out. In particular, digital transformation has been sh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accessibility and public interest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confirmed that recording and research, which are the major ax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k in a complementary manner, and that media can contribute to policy making and inducing public participation. Accordingly, by seeking desirable relationships with the media in the future, we proposed a strategy for preserving and utiliz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continuously promoting and expanding issues related to digital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 Intangible heritage, records, research, textmining, Bigkinds

논문투고일: 2024.11.28

논문심사일: 2025.01.09

심사완료일: 2025.01.22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Research Professor,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EJONG University

* Ph. D, Major in DANCE, SEJONG University

SEJ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